

메시지 3

하나님께서 주신 왕-구주의 이름인 예수와
사람이 부른 왕-구주의 이름인 임마누엘

성경: 마 1:21, 23, 18:20, 28:20

I.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부르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마 1:21.

- A. ‘예수’는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음역으로서, ‘여호와 구원자’, 혹은 ‘여호와와의 구원’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와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이시다 — 롬 10:12-13, 5:10, 비교 빌 1:19.
- B.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포함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는 ‘나는 -이다’이다.”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존재하시고 항상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 곧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계실 분이심을 가리킨다 — 출 3:14, 계 1:4.
 - 1. 여호와와는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이시며,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는 분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께서 ‘-이다’이시고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모든 것에서 유일하시고 특별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 히 11:6.
 - 2. ‘나는 -이다’로서 그분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 곧 모든 긍정적인 것의 실재이시자 그분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의 실재이시다 — 요 6:35, 8:12, 10:14, 11:25, 14:6.
 - 3. 우리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금액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서명된 백지 수표가 있고, 무엇이 필요한든 거기에 적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빛, 생명, 능력, 지혜, 거룩함, 의 등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발견된다.
- C. 예수님은 우리의 여호수아, 곧 우리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안식이란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시는 그분 자신이다 — 히 4:8, 마 11:28-29.
- D. 주님의 이름 곧 그분의 인격은 모든 것을 포함한 복합되신 영이다 — 아 1:3, 출 30:23-30, 빌 1:19.
- E.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 — 빌 2:9-10.
 - 1.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으로 믿어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 요 1:12.
 - 2.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으로 침례 받기 위한 것이다 — 행 8:16, 19:5.
 - 3.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 행 4:12.
 - 4.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치료받기 위한 것이다 — 행 3:6, 4:10.
 - 5.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씻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다 — 고전 6:11.
 - 6.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부르기 위한 것이다 — 롬 10:13, 고전 1:2, 행 9:14, 창 4:26.
 - 7. 그 영은 우리가 숨 쉬기 위한 하늘에 속한 공기이시다. 우리는 우리 영을 사용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영을 들이쉬어 그 영을 받아들인다 — 요 20:22, 갈 3:2, 살전 5:17, 애 3:55-56, 영한 동번 찬송가 255장(한국복음서원 찬송가 210장).
- F.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구원받기 위해 — 롬 10:13.
 - 2. 고통과 환난과 슬픔과 아픔에서 구출되기 위해 — 시 18:6, 118:5, 86:7, 50:15, 81:7, 116:3-4.
 - 3. 주님의 자애, 주님의 공휼에 참여하기 위해 — 시 86:5.
 - 4.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기 위해 — 시 116:2, 4, 13, 17.
 - 5. 그 영을 받기 위해 — 행 2:17, 21.
 - 6. 영적인 물을 마시고 영적인 음식을 먹어 만족하기 위해 — 사 55:1-2, 6.
 - 7. 주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 — 롬 10:12, 고전 12:3하, 신 4:7, 시 145:18.

8. 스스로 분발하기 위해 — 사 64:7.
 9.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 요 14:13-14, 15:16, 16:24.
 10.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으로 모이기 위한 것이다 — 마 18:20.
 11.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다 — 행 16:18.
 12.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위한 것이다 — 행 9:27.
- G.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미워한다.
1. 사탄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공격한다 — 비교 행 26:9.
 2.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공격하고 믿는 이들이 이 이름으로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금했다 — 행 4:17-18, 5:40.
 3. 사도들은 박해받았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을 기뻐했다 — 행 5:41, 15:26.
- H. 주 예수님은 빌라델비아의 이기는 이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을 칭찬하셨다 — 계 3:8.
1. 회복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다른 모든 이름을 버림으로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한다.
 2.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적인 음행이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고후 11:2)인 교회는 자기 남편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 된다.

II.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 마 1:23.

- A.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구주의 이름이지만, 임마누엘은 사람이 부른 왕-구주의 이름이다 — 마 1:23.
- B. 마태복음은 임마누엘, 곧 육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관한 책이다 — 마 1:21-23.
- C. 임마누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 빌 1:19.
1. 그분은 먼저 우리의 구주이시고(눅 2:11), 그다음에 구속자이시며(요 1:29, 롬 3:24), 그다음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고전 15:45하), 그다음에는 모든 것을 포함한 내주하시는 영이시다(요 14:16-20, 롬 8:9-11).
 2. 사실상 신약 전체의 내용은 임마누엘이고(마 1:23, 18:20, 28:20, 계 21:3),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이 위대한 임마누엘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다(고전 12:12, 골 3:10-11).
- D. 실지적인 임마누엘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는 실재의 영이시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영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즉 날마다 함께 있을 뿐 아니라 매 순간 함께 있다 — 요 1:14, 14:16-20, 고전 15:45하, 딤후 4:22.
1. 그분은 우리의 모임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18:20.
 2.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마 28:20.
 3.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 딤후 4:22.
 - a. 오늘날 우리의 영은 임마누엘의 땅이다 — 사 8:7-8.
 - b.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원수는 결코 임마누엘의 땅을 차지할 수 없다 — 사 8:10, 비교 요일 5:4, 요 3:6.
 4.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 모임 때 삼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 마 18:20, 28:20, 시 119:30, 행 6:4.
 5.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은혜와 평안을 누린다 — 갈 6:18, 행 9:31.

6. 그 영께서 인도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 곧 그분의 임재이다 — 롬 8:14, 16.
 7.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임재이신 그 영을 통해 삼일 하나님의 분배를 누린다 — 고후 13:14.
- E.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임재 안에 있어야 하는데, 이 임재는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신 생명 주시는 영이다 — 갈 5:25.
1.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우리가 여전히 살지만 우리 스스로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로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 삼일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는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에 분배하시려는 그분의 의도를 완성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분명히 내적인 것이다 — 갈 2:20.
 2. 임마누엘은 우리의 생명과 인격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기관으로서 그분과 한 인격이 되어 그분과 함께 산다. 우리의 승리는 임마누엘, 곧 예수님의 임재에 달려 있다.
 3.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가 있다면, 사물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과 예지와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 고후 2:10, 4:6-7, 갈 5:25, 창 5:22-24, 히 11:5-6.
- F. 우리가 좋은 땅의 실재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려면, 반드시 주님의 임재에 의해 그렇게 해야 한다. 주님은 모세에게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출 33:14)라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길, 곧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지도’이다.
1.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모든 것을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얻고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이라는 이 원칙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 마 1:23, 딤후 4:22, 갈 6:18, 시 27:4, 8, 51:11.
 2. 주님의 임재 곧 주님의 미소가 통제하는 원칙이다. 우리는 자신이 직접 얻은 주님의 임재에 의해 지켜지고, 다스림받고, 통제받고, 안내받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 시 27:8, 80:3, 7, 17-19.
 3. 성숙한 생명의 다스리는 방면을 대표하는 요셉은 주님의 임재를 누렸으며, 주님의 임재와 함께 주님의 권위와 번성과 축복을 누렸다 — 창 39:2-5, 21, 행 7:9.
 4.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매우 가까웠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 — 출 33:11.
 5.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눈에서 표현되는 그분의 인격 전체의 표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 고후 2:10.
 6. “젊었을 때 나는 이기고, 승리하고, 거룩해지고, 영적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웠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중 어느 것도 통하지 않았으며 … 주님의 임재 외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이 곧 모든 것이다.” — 여호수아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8, 61-62쪽.
- G. 신약 전체가 임마누엘이고, 지금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이 위대한 임마누엘의 일부이다. 신약은 ‘우리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사람으로 시작하여,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인 위대한 하나님-사람 곧 새 예루살렘으로 끝마친다 — 마 1:23, 고전 6:17, 행 9:4, 딤후 3:15-16, 계 21:3, 22, 겔 48:35.